

나주시의회, '부영CC 개발 공익확보 특별위' 활동

적절성 검증·시민 의견 수렴 시·부영·시민단체 가교역할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

나주시의회는 부영CC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는 지난 13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1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계획에 대해 상의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승인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부영CC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검증하고

나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될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 후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시장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인 부영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청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를 아울러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은 "이번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나주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 되고, 공익이 우선시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나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지방규제혁신 평가 화순군 최우수 기관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에 앞장선 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존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 등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와 제도 내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버스터미널 정상화 해법 모색

주차장 부지 평가 이달 말 결정

강진군이 강진군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위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버스터미널 정상화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위 소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터미널 운영 문제에 대해 민·관이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추진사항 중간보고와 향후 터미널 정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군에서 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건물 소유자인 (주)해석에게 유료 임대해 사업 면허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말 터미널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소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마삼섭 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추진위 소위원장은 "군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버스터미널 정상화 운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군과 함께 해결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사진공모전 대상작인 권현영 씨의 '매화와 목련의 만남'. 죽림재의 매화와 목련을 통해 봄의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잘 담아냈다. <담양군 제공>

'매화와 목련의 만남' 대상 '담양관광사진·UCC 공모전' 당선작 발표

담양군은 15일 전국의 사진·UCC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담양관광 사진·UCC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사진공모전 당선작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입선 25점이 선정됐다.

대상은 권현영의 '매화와 목련의 만남', 우수상에는 이종백의 '창평향교의 가을', 박혜진의 '겨울의 죽녹원', 장려상에는 김선아의 '가면', 양호림의 '미암박물관의 봄', 김지영의 '아름다운 풍경', 이승현의 '봉황루의 겨울밤'이 선정됐다.

대상작은 죽림재의 매화와 목련을 통해 봄의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코로나 위기도 조만간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영상공모전 당선작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 입선 4점이며 대상은 박현수 팀의 '서운이가 들려주는 슬기로움 담양여행'이 선정됐다.

당선작들은 죽림재, 미암박물관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내어 담양의 숨은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함평군, 17일까지 1500명 모집

함평군이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1409명, 사회서비스형 75명, 시장형 16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선발 후 읍·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함평군 노인복지관, 함평 문화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 요건은 공고일 기준 함평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함평군은 소득수준, 활동역량,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각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까지 각 수행기관으로 개별 통보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호 수변길에 소규모 정원 조성

지역 명소로 떠오른 장성호 수변길에 작은 정원이 꾸며졌다.

주차장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이 300㎡ 공간에 목수국, 황금사철, 맥문동, 대사초 골든라이트 등 초화류 1만2000여 본을 심었다. 교통약자를 배려해 안전한 경사길로 조성한 황금대나무숲길, 야생화 군락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원을 꾸몄다.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방문객



장성호 수변길 여유 공간에 조성한 소규모 정원.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경관 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